

동유럽의 통신서비스시장 현황 및 규제

연구원 안 재 흥*

주요 동유럽국가들의 2003년 1월 통신시장 완전자유화 실현을 앞두고, 이들 국가들의 통신시장의 현황과 규제 제도의 개혁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들 국가들의 규제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새롭게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다른 국가들이 통신규제제도 개혁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 차

- | | |
|---------------------|----------------------|
| I. 개 요 | 4. 루마니아 |
| II.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시장 현황 | 5. 슬로박 공화국 |
| 1. 폴란드 | 6. 불가리아 |
| 2. 체코 | III. 동유럽국가들의 규제제도 개혁 |
| 3. 헝가리 | IV. 결론 및 시사점 |

I. 개 요

최근 동유럽국가들은 EU가입을 위해 통신산업을 포함한 각종산업의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EU의 기준에 합치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국가 자체의 통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가입에 의한 시장의 확대 이후 이들 지역에서의 통신산업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2003년 1월 통신시장 완전자유화의 실현을 앞두고 이들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서비스시장 현황과 통신규제제도의 개혁을 검토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동유럽국가들 중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연락처 :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570-4435, nanana.kisdi.re.kr

루마니아, 슬로박 공화국, 불가리아 6개 국가를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1997년 GATS에 양허표를 제출하였으며, EU가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신규제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유럽국가들은 현재 인구측면에서 우리나라(4,800만)보다 작지만, 국토측면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우리나라(98,500km²)보다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GDP에서는 우리나라(1999년 6,257억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 동유럽국가들의 개황

항목(단위) \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박 공화국	불가리아
인구(백만명)	[1] 38.7	[0] 10.3	[0] 10.14	[1] 22.4	[1] 5.4	[1] 7.71
국토면적(km ²)	[1] 304,465	[1] 77,276	[1] 92,340	[1] 230,340	[1] 48,800	[1] 110,550
GDP(십억달러)*	[0] 158.9	[0] 49.51	[9] 47.50	[9] 34.03	[0] 19.20	[0] 11.99
통신서비스 매출(백만달러)**	[9] 5,886	[9] 2,225	[9] 2,295	[9] 758.6	[9] 445.5	[9] 385.4
통신서비스 투자(백만달러)**	[9] 1,440	[9] 849.4	[9] 538.4	[9] 293.2	[9] 118.8	[9] 71.1
100인당 유선보급률(%)	[0] 28.24	[0] 37.79	[9] 36.34	[0] 17.46	[0] 31.42	[0] 35.04
전화선의 디지털 비율(%)**	[8] 60.4	[9] 74.4	[9] 77.6	[9] 49.5	[9] 66.8	[9] 91.2
인터넷 보급률(%)	[0] 13	[0] 9.76	[0] 7.3	[0] 3.58	[0] 12.03	[0] 2.83
PC 보급률(%)	[0] 6.89	[0] 13.1	[9] 7.35	[0] 2.68	[0] 10.93	[0] 2.66
무선 보급률(%)***	[1] 23.37	[1] 58.47	[1] 42.59	[1] 14.89	[1] 33.12	[1] 11.79
무선 성장률(%)***	[1] 49.63	[1] 80.67	[1] 66.84	[1] 58.44	[1] 33.45	[1] 72.44
통신 무역수지(백만달러)*	[8] -354.6	[8] -205.3	[8] -150.8	[8] -150.8	[8] -74.1	[8] -30.5

주 1. * : CMA(2000,2001) 각국 자료

**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 : Mobile Communications 자료

2. [8]: 1998년, [9]: 1999년, [0]: 2000년, [1]: 2001년

자료: Paul Budde(2001, 2002) 각국 자료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서비스시장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GDP의 성장률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1999년 GDP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폴란드 3.7%, 체코 4.5%, 헝가리 4.8%, 루마니아 2.2%, 슬로박 공화국 2.3%, 불가리아 3.2%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및 CIS로의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이 지역 통신시장 규모의 성장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동유럽국가들의 GDP와 통신서비스매출 증가율 비교

(단위: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GDP	1.9	15.2	28.3	13.2	0.1	10.6	-2.4	2.2	
폴란드	통신서비스	7.6	7.1	33.5	17.8	36.3	52.3	11.8	-
GDP	22.4	16.1	30.4	11.3	-9.1	5.8	-4.6	-6.8	
체 코	통신서비스	25.2	29.0	28.8	15.8	37.9	26.1	10.4	-
GDP	3.6	7.5	6.6	1.0	1.3	4.6	0.2	-	
헝가리	통신서비스	27.7	25.7	53.3	19.1	10.2	15.0	11.6	-
GDP	34.6	14.1	18.0	-1.0	-0.6	18.7	-18.0	-	
루마니아	통신서비스	74.4	6.4	45.5	7.0	9.7	36.3	12.1	-
GDP	10.1	14.6	26.5	8.0	3.6	4.7	-3.2	-2.6	
슬로박 공화국	통신서비스	13.8	12.7	36.5	61.8	-11.3	3.2	-4.8	-
GDP	4.3	-10.3	35.0	-25.0	3.5	20.1	1.0	-3.2	
불가리아	통신서비스	13.0	-2.6	10.8	-10.8	0.7	39.3	25.9	-
GDP	9.2	12.4	23.6	7.2	-1.2	9.8	-4.3	-	
전 체	통신서비스	18.5	14.2	36.7	18.2	23.3	34.6	11.2	-

주: *: CMA(2000, 2001) 각국 자료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중 GDP(달러), Telecom revenue(달러)

동유럽지역에서도 유·무선대체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의 유선 보급률이 무선 보급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PC보급률과 인터넷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VoIP서비스 등 유선전화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선서비스시장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시장 현황

1. 폴란드

가. 통신시장 현황

CMA자료에 의하면 폴란드의 정보통신시장은 2000년에 20%성장하여 121억유로 규모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CMA에서는 이러한 성장세는 200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이러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시장의 급성장은 통신서비스시장의 급성장에 기인하며, 따라서 통신서비스시장의 비중은 2000년 약 65%에서, 2002년에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선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유선전화서비스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무선전화서비스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규모측면에서 2002년에 유·무선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서비스는 비록 현재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1년, 2002년에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케이블 TV서비스는 2001년 20%, 2002년 15%의 증가율이 예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통신서비스시장은 2001년에 17%, 2002년에 14.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3〉 폴란드 정보통신 시장규모

(단위: 백만유로)

세부시장	1998	1999	2000	2001	2002
기간통신서비스	4,614	5,638	7,051	8,695	10,040
유선전화	2,776	3,298	3,751	4,179	4,447
무선전화	1,438	1,883	2,744	3,849	4,810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196	221	265	318	382
케이블 TV	204	236	291	349	401
기타 서비스	588	623	804	941	1,081
서비스시장 총합	5,202	6,261	7,855	9,636	11,121
소프트웨어	288	332	378	432	483
장비시장	3,119	3,535	3,924	4,617	4,425
정보통신 시장 총합	8,609	10,128	12,157	14,685	16,029

주: 2001년, 2002년 수치는 예측치

자료: CMA 'Poland'(2001. 6), EITO 2001 자료 재인용

나. 주요 통신사업자

1) 유선통신사업자

폴란드의 지배적 유선통신 사업자는 Telekomunikacja Polska(TP SA)이다. France Telecom과 Kulczyk Holdings의 컨소시엄이 TP SA 지분의 4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이 옵션으로 얻은 2.5%+1주의 매수청구권을 2002년에 행사할 경우 이들은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1991년 1월 폴란드 시내전화 시장자유화에도 불구하고 1999년말 TP SA의 직접교환회선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에 시외전화, 2003년 1월에 국제전화 시장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TP SA는 현재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인 투자와 동시에 다양한 요금제도 제시, 장거리전화요금 할인 등을 행하고 있다. TP SA는 폴란드 무선통신사업자인 PTK Centertel 지분의 66%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로는 시내전화서비스 부문에서는 Netia Holdings, Elektrim이 있으며, 망서비스 부문에서는 NOM, NG Koleje Telekomunikacja가 있다.

TP SA의 경영상황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TP SA의 매출에서 유선전화매출이 74.7%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상호접속수입이 7.8%, 이동전화매출 7.0%, 전용회선임대수입 3.5%, 전화카드판매 2.3%, 기타매출이 4.5%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표 4> TP SA의 경영상황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백만PLN)	NA	NA	NA	13,160	15,879 [20.7]
영업이익(백만PLN)	NA	NA	NA	2,875	3,023 [5.1]
순이익(백만PLN)	NA	NA	NA	860	1,331 [54.6]
자본지출(백만PLN)	NA	NA	NA	5,526	5,953 [7.7]
총자산(백만PLN)	NA	NA	NA	26,466	32,914 [24.2]
직접교환회선(천회선)	6,532	7,469 [14.3]	8,485 [13.6]	9,643 [13.6]	10,233 [6.1]
환율(PLN/\$1)*	2.69	3.27 [21.6]	3.47 [6.1]	3.97 [14.4]	4.35 [9.6]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TP SA"(2001. 6)

2) 이동통신사업자

현재 폴란드 무선통신시장에는 NMT-450, DCS-1800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PTK Centertel와 GS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olska Telefonía Cyfrowra(PTC)-Era GSM, Polkomtel가 존재한다. PTK Centertel의 지분 중 유선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TP SA가 66%, France Telecom이 34%를 소유하고 있다. PTC Era의 경우 ET¹⁾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Deutsche Telekom이 나머지 45%를 보유하고 있다. Polkomtel의 지분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분산되어 있으며, 덴마크의 TDC와 Vodafone이 각각 19.61%, 또한 폴란드 기업인 KGHM, PKN이 각각 19.61%, PSE가 16.05%, 기타 3개 기업이 나머지 5.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26.1%, 38.6%, 35.3%로 경쟁이 잘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폴란드는 2000년 12월 기존의 3개 사업자에게 2002년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조건하에 3G 무선면허를 부여하였으며, 2002년이나 2003년에 4번째 3G 무선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표 5> 폴란드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 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Centertel	NMT-450	1992	230,000	260,000	200,000	140,000	60,000
			-	13.04	-23.08	-30.00	-57.14
	DCS-1800	1998	-	120,000	450,000	1,300,000	2,300,050
			-	-	275.00	188.89	76.93
PTC Era	GSM-900/1800	1996	258,000	600,000	1,500,000	2,515,000	3,500,000
			-	132.56	150.00	67.67	39.17
Polkomtel	GSM-900/1800	1996	200,000	600,000	1,400,000	2,100,000	3,200,000
			-	200.00	133.33	50.00	52.38
총 합			688,000	1,580,000	3,550,000	6,055,000	9,060,050
			-	129.65	124.68	70.56	49.63
무 선 보 급 률			1.79	3.65	9.07	15.30	23.37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1) 프랑스의 Vivendi Universal이 ET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기업인 Elektrim이 나머지 49%를 소유하고 있다.

2. 체 코

가. 통신시장 현황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EITO) 2001’에 의하면 체코의 정보통신시장은 1999년 16.4%, 2000년 30.2%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57.24억유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EITO에서는 체코의 정보통신시장이 2001년에 8.9%, 2002년에 3.6%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보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통신서비스로 2000년 약 5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선과 케이블TV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2002년에는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규모 측면에서 2000년 유·무선대체가 이루어진 후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무선전화서비스이다. 유선과 무선 시장규모 격차는 2001년 이후 무선전화서비스의 증가율이 둔화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는다.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서비스의 경우에는 2001년 20%, 2002년에 1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케이블 TV서비스는 2001년 33%, 2002년 26.7%의 높은 증가율이 예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통신서비스시장은 2001년에 13.7%, 2002년에 12.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6〉 체코 정보통신 시장규모

(단위: 백만유로)

세부시장	1998	1999	2000	2001	2002
기간통신서비스	1,603	1,911	2,607	3,178	3,334
유선전화	889	1,048	1,099	1,100	1,117
무선전화	568	710	1,314	1,839	1,936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119	119	149	179	205
케이블 TV	27	34	45	60	76
기타 서비스	566	617	687	781	879
서비스시장 총합	2,169	2,528	3,249	3,959	4,213
소프트웨어	226	249	279	315	348
장비시장	1,377	1,616	2,151	1,957	1,895
정보통신 시장 총합	3,772	4,393	5,724	6,231	6,456

주: 2001년, 2002년 수치는 예측치

자료: CMA 'Czech Republic'(2001. 7), EITO 2001 자료 재인용

나. 주요 통신사업자

1) 유선통신사업자

2000년 체코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서 Cesky Telecom의 시장점유율은 99%이다. 이러한 체코의 지배적 사업자인 Cesky Telecom의 지분 중 51%를 국가자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27%를 TelSource컨소시엄²⁾에서, 10.4%를 Chase Nominees Ltd에서, 6.5%를 KPN에서 보유하고 있다. Cesky Telecom은 무선통신사업자인 EuroTel Praha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Cesky Telecom의 유선전화서비스부문 경쟁사업자로는 2001년 1월 면허를 획득한 9개 사업자가 있다. 2001년 2월 이 중 Aliatel, Contactel 2개 사업자가 Cesky Telecom과 상호접속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지만, 나머지 7개 사업자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망 서비스 부문에서는 CRa, CD-Telekomunikace AS, CEZTel 등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Cesky Telecom 매출이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율도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달러로 환산할 경우의 매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매출에서 유선전화통화매출이 52.8%로 가장 큰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신청비 및 기타요금비 16.6%, 자회사들로부터의 수입이 11.5%, 텔렉스 및 데이터통신에서의 매출이 7.8%, 기타 매출이 11.3%를 점하고 있다.

<표 7> Cesky Telecom의 경영상황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백만Kc)	32,483	39,992 [23.1]	45,893 [14.8]	51,902 [13.1]	57,224 [10.3]
영업이익(백만Kc)	8,028	10,062 [25.3]	11,358 [12.9]	12,323 [8.5]	12,071 [-2.0]
순이익(백만Kc)	-483	6,035 [NC]	6,060 [0.4]	6,171 [1.8]	6,356 [3.0]
자본지출(백만Kc)	30,133	35,248 [17.0]	33,232 [-5.7]	18,116 [-45.5]	16,927 [-6.6]
총자산(백만Kc)	106,167	127,856 [20.4]	146,811 [14.8]	155,486 [5.9]	160,377 [3.1]
직접교환회선(천회선)	2,815	3,274 [16.3]	3,734 [14.1]	3,839 [2.8]	3,854 [0.4]
환율(Kc/\$1)*	27.14	31.70 [16.8]	32.28 [1.8]	34.57 [7.1]	38.59 [11.6]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Cesky Telecom"(2001. 7)

2) KPN(51%)과 Swisscom(49%)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동통신사업자

6개 분석대상국가들 중 무선보급률이 가장 높은 체코 무선통신시장³⁾에는 NMT-450, GSM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EuroTel Praha와 GSM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Radio Mobil, Cesky Mobil이 존재한다. EuroTel Praha 지분의 51%를 Cesky Telecom에서, 나머지 49%를 Atlantic West consortium에서 보유하고 있다. Radio Mobil 경우에는 지분 중 60.8%를 CMobil 컨소시엄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9.2%를 Ceske Radiokomunikace에서 보유하고 있다. Cesky Mobil은 캐나다의 TIW에서 51%, 체코의 은행그룹인 CSOB에서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7.8%, 41.7%, 10.5%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2001년 2월 체코정부는 3G 무선면허를 2001년 9월에 기존 3개 사업자와 경매를 통해 선정된 1개 사업자에게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표 8> 체코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EuroTel Praha	NMT-450	1991	65,000	57,000	71,000	60,000	60,000
			-	-12.31	24.56	-15.49	0.00
	GSM-900/1800	1996	240,000	456,000	879,000	1,590,000	2,799,158
					-	90.00	92.76
Radio Mobil	GSM-900/1800	1996	105,000	260,250	650,000	1,500,000	2,500,000
					-	147.86	149.76
Cesky Mobil	GSM-900/1800	2000	-	-	-	165,000	630,000
					-	-	-
총 합			410,000	773,250	1,600,000	3,315,000	5,989,158
					-	88.60	106.92
무선보급률			3.98	7.51	14.66	30.58	58.47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 3) 동유럽국가들 중 무선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2001년 10월 1일 기준으로 70.93%에 이르고 있다.
- 4) 이 컨소시엄은 Deutsche Telekom(87.3%), STET Mobile Holdings NV(12%), PVT(0.7%)로 구성되어 있다.

3. 헝가리

가. 통신시장 현황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EITO) 2000’에 의하면 헝가리의 정보통신시장은 1998년에 16.8% 성장하여 1999년에 31억유로 규모에 달하였으며, 또한 EITO에서는 헝가리의 통신시장이 2000년에 13.8%, 2001년에 1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보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다른 분석대상국가와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시장이며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선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무선전화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곧 유·무선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서비스에 대한 EITO의 예측은 2000년의 성장률이 22.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케이블 TV서비스는 2000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통신서비스시장은 2000년에 16.4%, 2001년에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헝가리 정보통신 시장규모

(단위: 백만유로)

세부시장	1999	2000	2001
기간통신서비스	1,700	1,928	2,154
유선전화	926	NA	NA
무선전화	647	NA	NA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52	NA	NA
케이블 TV	75	NA	NA
기타 서비스	336	391	447
서비스시장 총합	2,036	2,319	2,601
소프트웨어	153	170	187
장비시장	924	1,052	1,164
정보통신 시장 총합	3,113	3,541	3,952

주: 2000년, 2001년 수치는 예측치

자료: CMA 'Hungary'(2000, 10), EITO 2000 자료 재인용

나. 주요 통신서비스사업자

1) 유선통신사업자

Matav는 시외전화·국제전화 시장에서 2002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Matav는 시내전화시장에서 헝가리 전지역의 70%, 유선전화 가입자의 77.91%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2001년 6월에 Emitel 지분의 완전한 인수에 대해 Competition Office(GVH)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Emitel의 시장점유율 2.29%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현재 Deutsche Telekom이 Matav 지분의 59.49%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이다. 시내전화시장에서 Matav의 경쟁사업자는 VTH, HTCC, Monortel 등이 있으며, 망서비스 시장에는 철도회사인 MAV가 설립한 PanTel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Matav는 약 20% 정도의 매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증가율의 감소는 유선전화매출의 감소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다른 부문에서의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2000년 매출에의 비중이 29%인 시내·외 전화매출이 3.4% 감소하였으며, 9.3%인 국제전화매출도 5.4% 감소함으로써 전체의 매출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6%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2000년 매출에서 유선전화매출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점하고 있는 비중은 이동통신서비스매출이 24.4%, 가입비 및 기타 요금 18.6%, 기타 매출이 18.7%이다.

〈표 10〉 Matav의 경영상황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백만HUF)	196,490	253,948 [29.2]	318,060 [25.2]	384,932 [21.0]	445,945 [15.9]
영업이익(백만HUF)	52,088	74,054 [42.2]	96,106 [29.8]	121,131 [26.0]	112,871 [-6.8]
순이익(백만HUF)	23,088	36,034 [56.1]	58,337 [61.9]	78,632 [34.8]	68,763 [-12.6]
자본지출(백만HUF)	87,552	94,786 [8.3]	116,283 [22.7]	127,678 [9.8]	152,784 [19.7]
총자산(백만HUF)	420,208	480,611 [14.4]	549,540 [14.3]	647,870 [17.9]	745,509 [15.1]
직접교환회선(천회선)	2,219	2,404 [8.3]	2,672 [11.1]	2,900 [8.5]	2,966 [2.3]
환율(HUF/\$1)*	152.6	186.8 [22.4]	214.4 [14.8]	237.2 [10.6]	NA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Marav"(2001. 12)

2) 이동통신사업자

헝가리의 이동통신시장에는 1개의 아날로그 사업자와 3개의 디지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Westel 450과 Westel Mobil 각각의 지분 중 51%를 Matav가 보유하고 있으며, Deutsche Telekom이 나머지 49%를 보유하고 있다. Pannon GSM의 지분 중 KPN Telecom에서 26.8%, Telenor Invest AS에서 23.4%, Sonera Holdings에서 20.9%, MediaTel에서 15.2%, Tele Danmark에서 3.9%를 보유하고 있다. Vodafone Hungary은 Vodafone

AirTouch에서 50.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대주주이며, RWE Teliance에서 19.9%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허가조건상 헝가리 국민의 25%이상 지분소유의무 때문에 Antenna Hungaria가 20%, Magyar Posta가 10%를 소유하고 있다. 경쟁상황은 가입자수 기준으로 Westel이 52.8%, Pannon이 39.3%, Vodafone Hungary가 7.9%로 폴란드와 체코에 비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집중되어있다고 할 수 있지만 2, 3위 사업자의 가입자수 증가율이 1위 사업자보다 높으므로 경쟁상황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3G 무선사업자 선정은 2002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헝가리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Westel 450	NMT-450	1990	80,000	93,880	99,166	82,000	57,000
			-	17.35	5.63	-17.31	-30.49
Westel 900	GSM-900/1800	1994	345,000	497,000	748,000	1,350,000	2,200,000
			-	44.06	50.50	80.48	62.96
Pannon GSM	GSM-900/1800	1994	228,000	350,000	550,000	1,000,000	1,680,000
			-	53.51	57.14	81.82	68.00
Vodafone Hungary	GSM-900/1800	1999	-	-	-	130,000	337,325
			-	-	-	-	159.48
총 합			653,000	940,880	1,397,166	2,562,000	4,274,325
			-	44.08	48.50	83.37	66.84
무선보급률			6.47	9.32	13.83	25.37	42.59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4. 루마니아

가. 유선통신사업자

루마니아에서 Rom Telecom은 2002년 12월까지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사업자이다. 그리스의 OTE에서 Rom Telecom 지분의 35%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표권에 대해 추가적으로 16%를 보유함으로써 과반수를 넘는 51%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의 나머지 부분인 65%는 정부소유기금(State Ownership Fund)에서 보유하고 있다. Rom Telecom은

무선통신사업자인 Cosmorom을 완전 소유하고 있다. Rom Telecom의 망서비스 시장 경쟁 자로는 SNR, CFR, Conel 등이 있다.

Rom Telecom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달러환산 매출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라고 보여진다. 1999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시내·외 전화매출로 전체매출의 44.4%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임대요금으로 18.2%, 자회사들로부터의 수입이 14.8%, 국제전화매출이 8%, 기타 매출이 14.6%를 점하고 있다.

<표 12> Rom Telecom의 경영상황

	1995	1996	1997	1998	1999
매출(십억Lei)	8,738	9,956 [13.9]	10,754 [8.0]	11,213 [4.3]	14,536 [29.6]
영업이익(십억Lei)	1,164	1,738 [49.3]	2,046 [17.7]	1,131 [-44.7]	1,472 [30.2]
순이익(십억Lei)	NA	NA	NA	2,504	407 [-83.7]
자본지출(십억Lei)	NA	NA	NA	3,863	5,339 [38.2]
총자산(십억Lei)	28,067	29,237 [4.2]	30,023 [2.7]	38,645 [28.7]	38,934 [0.7]
직접교환회선(천회선)	2,948	3,134 [6.3]	3,397 [8.4]	3,594 [5.8]	3,740 [4.1]
환율(Lei/\$1)*	2,033	3,084 [51.7]	7,168 [132.4]	8,876 [23.8]	15,333 [72.7]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Slovak Telecom"(2001. 7)

나. 이동통신사업자

현재 루마니아 무선통신시장에는 NMT-450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elemobil와 GS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obiFon, Mobil Rom, 그리고 DCS-1800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osmorom이 있다. 루마니아는 2003년 1월 4번째 GSM서비스 제공사업자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루마니아에는 3G 무선면허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Telemobil의 지분 중 98%를 미국의 Inquam이 2000년에 획득하였다. Inquam은 지분 획득 직후부터 CDMA 방식의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박 공화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날로그사업자의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MobiFon의 대주주는 캐나다의 TIW(49.9%)이며, 영국의 Vodafone이 20.1%, Posta Romana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Mobil Rom의 대주주는 France Telecom Mobiles International으로 지분의 51%를, France Telecom Participation Belgium이 16.81%를 소유하고 있다.

Cosmorom은 Rom Telecom이 완전소유하고 있다.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경쟁상황을 보면 MobiFon이 47.8%, Mobil Rom이 45.1%로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Cosmorom의 점유율이 비록 2001년 현재 3.9%이지만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쟁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루마니아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Telemobil	NMT-450	1993	17,600	15,366	20,000	78,600	105,000
			-	-12.69	30.16	293.00	33.59
MobiFon	GSM-900	1997	50,000	250,000	558,000	1,000,000	1,590,000
			-	400.00	123.20	79.21	59.00
Mobil Rom	GSM-900	1997	60,000	300,000	530,000	1,000,000	1,500,000
			-	400.00	76.67	88.68	50.00
Cosmorom	DCS-1800	2000	-	-	-	20,000	130,000
			-	-	-	-	550.00
총 합			127,600	565,366	1,108,000	2,098,600	3,325,000
			-	343.07	95.98	89.40	58.44
무선보급률			0.56	2.46	4.86	9.12	14.89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5. 슬로박 공화국

가. 통신시장 현황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EITO) 2001'에 의하면 슬로박 공화국의 정보통신시장은 1999년, 2000년 16.2% 성장하여 20.32억유로 규모에 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은 2001년에 23.1%로 급속히 높아졌다가, 2002년에 14.4%로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통신서비스시장으로 2000년 약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1999년 35.1%, 2000년 41.1% 성장한 무선전화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는 기간통신서비스부문이다. 이러한 무선전화서비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비록 슬로박 공화국에서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이 13.6%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규모 측면에서 2001년에 유·무선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서비스는 2001년 13.6%, 2002년에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케이블 TV서비스는 2001년 20%, 2002년 18.7%의 증가율이 예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통신서비스시장은 2001년에 15.7%, 2002년에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2001년 이후 통신서비스부문 성장률의 감소에 의해 슬로박 공화국 정보통신 시장의 성장률도 2001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4〉 슬로박 공화국 정보통신 시장규모

(단위: 백만유로)

세부시장	1998	1999	2000	2001	2002
기간통신서비스	729	893	1,136	1,407	1,714
유선전화	388	449	533	609	692
무선전화	261	352	497	675	881
데이터 교환/전용회선 임대	51	59	66	75	84
케이블 TV	29	33	40	48	57
기타 서비스	135	150	172	199	225
서비스시장 총합	864	1,043	1,308	1,606	1,939
소프트웨어	70	78	89	101	111
장비시장	569	626	635	794	810
정보통신 시장 총합	1,503	1,747	2,032	2,501	2,860

주: 2001년, 2002년 수치는 예측치

자료: CMA 'Slovakia'(2001. 8), EITO 2001 자료 재인용

나. 주요 통신사업자

1) 유선통신사업자

현재 슬로박 공화국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 사업자인 Slovak Telecom 지분 중 51%를 Deutsche Telecom에서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49%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34%를 운송·우편·통신 장관이, 15%를 국가자산기금에서 소유하고 있다. Slovak Telecom은 무선이동통신사업자인 Eurotel Bratislava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다. Slovak Telecom의 경쟁사업자는 정부소유의 기존의 6개 광통신망 사업자가 합병하여 설립된 Energotel이다.

2000년 전체매출에서 시내·외 전화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로 가장 크며, 가입비 및 다른 요금이 12.8%, 자회사들로부터의 수입이 10.9%, 국제전화매출이 9.2%, 기타 매출이 16.5%를 점하고 있다.

<표 15> Slovak Telecom의 경영상황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백만Sk)	NA	15,249	16,974 [11.3]	18,424 [8.5]	18,370 [-0.3]
영업이익(백만Sk)	NA	4,621	3,974 [-14.0]	4,138 [4.1]	3,041 [-26.5]
순이익(백만Sk)	NA	2,233	902 [-59.6]	1,626 [80.3]	219 [-86.5]
자본지출(백만Sk)	NA	NA	NA	4,229	4,934 [16.7]
총자산(백만Sk)	NA	41,310 [NA]	48,955 [18.5]	50,905 [4.0]	45,080 [-11.4]
직접교환회선(천회선)	1,246.5	1,391.9 [11.7]	1,539.3 [10.6]	1,655.4 [7.5]	1,723.4 [4.1]
환율(Sk/\$1)*	30.65	33.62 [9.7]	35.23 [4.8]	41.36 [17.4]	46.20 [11.7]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Slovak Telecom"(2001. 7)

2) 이동통신사업자

현재 슬로박 공화국 무선통신시장에는 NMT-450, GSM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Eurotel Bratislava와 GS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Globtel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슬로박 공화국에서 3번째 GSM서비스 면허는 2002년에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tel Bratislava 지분의 51%를 Slovak Telecom에서, 49%를 Atlantic West consortium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Globtel 경우 지분의 64%를 France Telecom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는

<표 16> 슬로박 공화국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 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Eurotel Bratislava	NMT-450	1991	45,240	41,000	15,000	4,000	1,000
			-	-9.37	-63.41	-73.33	-75.00
	GSM	1997	32,760	184,000	345,000	619,500	802,638
			-	461.66	87.50	79.57	29.56
Globtel	GSM	1997	55,000	242,892	460,000	713,595	980,655
			-	341.62	89.38	55.13	37.42
총 합			133,000	467,892	820,000	1,337,095	1,784,293
			-	251.80	75.25	63.06	33.45
무 선 보 급 률			2.46	8.71	15.19	24.76	33.12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슬로박 공화국의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가입자수 측면에서 Globtel이 54.9%, Eurotel Bratislava가 45.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슬로박 공화국에서 3G 무선사업자면허는 2002년 중반에 경매를 통해서 3개 사업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3년 초에는 시범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불가리아

가. 통신시장 현황

미국 상무성(The US Department of Commerce)의 자료를 인용한 CMA에 의하면 불가리아의 통신서비스시장은 2000년 4.8억달러 수준이며, 2001년 10%, 2002년에 15%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 93%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선전화서비스이다. 현재 통신서비스시장에서 7%의 비중밖에 없는 무선전화서비스는 100%이상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시장은 2000년에 15% 증가하여 2,300만달러 규모 수준에 있으며, 2001년, 2002년 1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인터넷시장이 연 50% 성장하여 2000년에 5,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주요 통신사업자

1) 유선통신사업자

BTC는 불가리아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까지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인 Mobikom 지분의 39%를

〈표 17〉 BTC의 경영상황

	1996	1997	1998	1999	2000
매출(백만Lev)	NA	NA	538.2	700.4 [30.1]	813.2 [16.1]
영업이익(백만Lev)	NA	NA	79.2	120.3 [51.9]	247.4 [105.7]
순이익(백만Lev)	NA	NA	96.3	82.0 [-14.8]	168.5 [105.5]
자본지출(백만Lev)	NA	NA	NA	129.3 [NA]	117.1 [-9.4]
직접교환회선(천회선)	NA	2,681	2,758 [2.9]	2,833 [2.7]	2,882 [1.7]
환율(Lev/\$1)*	1.779	1,682 [-5.5]	1,760 [4.6]	1,840 [4.5]	2,124 [15.4]

주: 1. *: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자료

2. []: 변화율(%)

자료: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BTC"(2001, 11)

소유하고 있다. BTC의 망서비스 부문 경쟁자는 전력회사인 NEC(National Electricity Company)와 케이블방송사인 Bulgaria Cable 등이 있다.

전체매출의 대부분인 82%가 전화매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정산료에서 11%, 기타 매출에서 7%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이동통신사업자

현재 불가리아 무선통신시장에는 NMT-450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TC Mobikom와 GS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obilTel, Cosmo Bulgaria Mobile가 무선통신사업면허를 부여받아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TC Mobikom의 지분은 Cable and Wireless(49%), BTC(39%), Radio Electric Systems(12%) 등과 같이 모든 지분을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서 불가리아는 NMT-450방식의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MobilTel의 대주주는 이스라엘 투자자들로서 지분의 94.7%를 소유하고 있다. Cosmo Bulgaria Mobile의 대주주는 그리스의 OTE로서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다. 무선통신시장 가입자의 대부분인 81.4%에게 MobilTel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TC Mobikom이 12.6%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동유럽국가의 경우와 같이 2번째 GSM사업자로 선정된 Cosmo Bulgaria Mobile의 가입자는 차후 몇 년간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에서는 3G 무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다.

<표 18> 불가리아의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명	방식	설립연도	가입자수(명)				
			증가율(%)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RTC Mobikom	NMT-450	1993	22,533	67,000	118,182	162,500	180,000
			-	197.34	76.39	37.50	10.77
MobilTel	GSM	1995	16,523	53,000	140,000	400,000	790,000
			-	220.76	164.15	185.71	97.50
Cosmo Bulgaria Mobile	GSM	2001	-	-	-	-	-
			-	-	-	-	-
총 합			39,056	120,000	258,182	562,500	970,000
			-	207.25	115.15	117.87	72.44
무선보급률			0.45	1.45	2.97	6.47	11.79

자료: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Ⅲ. 동유럽국가들의 규제제도 개혁

동유럽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꾸준히 경제전반의 규제개혁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 중 통신부문은 망구축과 같이 거대 초기자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규제제도의 명확성, 투명성 그리고 공평성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사업부문과 정책규제부문의 분리함과 동시에 통신·우편·방송 부문간 사업분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운영에 의한 비효율성 제거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자의 민영화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의 진행속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헝가리의 경우 정부는 '황금주' 1주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전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을 완료하였지만, 불가리아의 경우 모든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신규제제도를 EU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통신법이 발효됨으로써 이러한 민영화는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9〉 동유럽국가들의 단계별 규제제도 개혁

구 분	내 용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박	불가리아
1단계	사업부문과 정책·규제부문 분리	1990	1993. 1	1989	1991. 7	1993. 1	1991. 6
	통신·우편·방송 사업 분리	1990	1993. 1	1990	1991. 7	1993. 1	1992.12
2단계	민영화 추진 (최초 입찰)	1996	1994. 8	1993. 7	1997. 7	1999. 2	1996
3단계	새로운 통신법 발효 (EU기준에 합치)	2001. 1	2000. 7	2002. 1	1996	2000	1998
4단계	시장진입 완전자유화	2003. 1	2001. 1	2003. 1	2003. 1	2003. 1	2003. 1
기 타	시내전화서비스 경쟁도입	1991. 1	1995	1994	2003. 1	2003. 1	2003. 1
	시외전화서비스 경쟁도입	2000. 1	2001. 1	2001.12	2003. 1	2003. 1	2003. 1
	국제전화서비스 경쟁도입	2003. 1	2001. 1	2001.12	2003. 1	2003. 1	2003. 1

새로운 통신법에서는 통신시장진입 자유화의 조기정착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진입 기준을 마련, 상호접속·보편적서비스·번호이동성·사업자 사전선택제 등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원칙을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정책·규제기능 중 규제기능을 독립규제기관에게 이양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동유럽국가들의 규제제도 개혁과정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진입의 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이들 국가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동유럽국가들은 시장진입의 자유화 시기를 결정할 때 정부재정, 효율성 2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즉 시장진입의 자유화는 정부 보유지분 매각대금을 감소시키지만, 경쟁촉진에 의한 경제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경우 민영화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시외·국제 전화서비스를 일정 기간 독점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경쟁을 위해서는 시내전화서비스에 진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전기, 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망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육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개 국가들은 시내전화서비스 진입을 허용하는 형태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체코의 경우에는 모든 통화지역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시키고 있지만, 헝가리의 경우에는 일부 통화지역을 분리매각 후 그 지역에서의 독점권을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새로 진입한 각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이 이들 동유럽국가들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통신서비스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제도의 개혁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통신산업관련 투자여건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통신망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장진입, 시스템 및 단말기의 수출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내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안정될 경우 EU가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서유럽 국가들에 접근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시장현황 분석은 이러한 투자 측면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 후 세계 통신시장에서 하나의 축으로 형성될 EU의 통신서비스시장을 분석하는 데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들의 통신규제제도 개혁과정은 이후 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이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사전대응전략의 수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Paul Budde Communications Pty Ltd, "Bulgaria",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2. 1
- [2] _____, "Czech Republic-Key Statistics, Regulatory Overview and Major Players",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6
- [3] _____, "Czech Republic-Public Data, Internet, Wireless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6
- [4] _____, "Hungary",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6
- [5] _____, "Poland-Key Statistics,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Major Players",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10
- [6] _____, "Poland-Internet, Wireless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10
- [7] _____, "Slovak Republic",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1. 11
- [8] _____, "Romania",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Highways, <http://www.budde.com.au>, 2002. 1
- [9]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Bulgaria", 2001. 10
- [10] _____, "Bulgarian Telecommunications Company", 2001. 11
- [11] _____, "Czech Republic", 2001. 7
- [12] _____, "Czech Telecom", 2001. 7
- [13] _____, "Hungary", 2000. 10
- [14] _____, "Matav", 2001. 12
- [15] _____, "Poland", 2001. 6
- [16] _____, "Romania", 2000. 6

- [17]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Rom Telecom", 2001. 3
- [18] _____, "Slovak Republic", 2001. 8
- [19] _____, "Slovak Telecom", 2001. 7
- [20] _____, "Telekomunikacja Polska SA", 2001. 6
- [21] ITU, "World Telecommunications Indicator 2001", 2001
- [22]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Communications guide to east European cellular subscribers", 1996. 10. 1, 1997. 10. 1, 1998. 10. 1, 1999. 10. 1, 2000. 10. 1, 2001. 10. 1
- [23] 안재홍, "동유럽국가들의 통신서비스시장개방",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4권1호, 2002. 1
- [24] 통신개발연구원, 'WTO 기본통신협상 종합보고서', 1997. 6